

## 周易思想의 實體意識에 對하여

특히 安浩相氏의 批判에 答함(五)

跛龔生

그리고 氏가 伊川의 『形而上者 是□也』의 □字의 意를 解함에 있어서 拙文의 論旨에 前提된 伊川의 氣와 器를 混同한 事實을 論難한 句節을 빼어 버린 것은 印刷의 不正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그도 큰 問題가 아니니 追求치 안는다. 그런데 氏는 前回拙文에서 朱子學說을 論難한 句節을 抄記한 후 아모리한 評論도 說明도 加치 안코 곧 이어 『여기에 對하여 다른 것은 그만 두고 한 가지에 對하여 말 할 것은 氏(筆者를指稱)가 理와 道, 또는 道와 太極의 關係를 分明히 理解치 못한 感이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理와 道가 다른것을 말하였으되 『理는 오즉 하나 이지마는 道는 여럿이 잇는 까닭이다. 周易에서 知는 天之道이오. 仁은 地之道(讀解上第四章第三節大註)라 하였으며, 中庸 第三十章에서는 『萬物並育而不相害, 道並行而不相悖』와 또 『四時日月, 皆道也』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人之道, 易之道, 牛之道 『中庸第一章第一節細註)를 말한 것을 본다면 道는 多數이지마는 理則一也인 것을 分明히 알 수있다. 어찌 이뿐이라. 朱子는 『理之分□條理即道也』(中庸第一章拙註)라 하였다. 理와 道의 關係와 本質에 對한 깊은 究明은 大且難한 故로 더 말치 안는다』고 하였다.

從來 만든 學者들이 하나의 理念을 가지고 理이니, 道이니, 神이니, 帝이니 하는 여러 가지 文字로 表現하여 非常한 混亂를 惹起한 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그러므로 氏가 이 問題의 解決이 大且難함을 말하고 깊은 究明을 回避하는 것은 決코 逃避가 아니오. 眞實한 學者의 良心에서 나온 正直한 告白이니 敬意를 表치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先儒들이 主張을 여기저기서 抄出하여 『道는 多數이지마는 理則一也인 것을 分明히 알 수 있다』고 斷言함은 學者의 注意할 바 아닌가 한다. 그리고 『人之道, 馬之道, 牛之道를 말한 것을 본다면 道는 多數이다』하니 그러면 天之理, 地之理, 山之理, 水之理 等の 말이 잇으니 理도 多數가 될 것이 아닌가. 元來

物마다 理가 있고 事마다 道가 있는 것이니 理도 一인 同時에 萬이요. 道도 一인 同時에 萬이다. 그러므로 萬殊一理라 하고 萬事一道라 하였다. 그리고 繫辭傳의 『知者天之道, 仁者地之道』라 함은 天의 道와 地의 道가 各在하니 道가 물이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의 道가 멀리 天에 實現 되고 그리하여 地에 나타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周易經文의 乾卦의 元은 道가 天에 資하여 始한 者이요. 坤卦의 元은 道가 地에 資하여 生한 者이다. 또 氏는 中庸에서 『道並行而不相悖』라 하였고, 『四時日月皆道也』라 하였으니 道는 多數이라 하지마는 이것은 하나의 道가 여러 가지로 分派된 것을 이룸이다. 卽 『四時日月皆道也』라 함은 萬事一道를 말한 것이요. 『道並行而不相悖』라 함은 一道萬事を 가르친 말이다. 그리고 朱子の 『理之分派條理卽道』라 함은 一理萬殊의 理致가 곧 道라는 뜻이요. 道가 多數라 혼말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道가 理와 다른 것이 되면 形而上者는 道와 理의 □이 되어 그에 器를 加하면 三元論이 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것은 周易思想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儒家思想의 文獻에서도 發見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리되면 그것은 氏의 二元的 見解와도 相容 할 수 없지 아니한가. 그런데 前回拙文에서도 詳論한 바와 같이 宋儒들이 老子的 『一生一, 一生兩』思想을 徹底排擊하여 太極思想과 老子思想과의 間에 界線을 明示한 것은 不朽할 功績이어나와 氏는 이제 道와 理가 다른것을 말함으로써 다시 이 界線을 擺脫해 바리려 하는 것은 理解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氏는 『만일 道와 理를 現代의 術語로써 表現한다 하면 理는 體로서 刺約이매 理由이지마는 道는 被制約 者로서 結果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現代의 科學思想은 勿論이요. 周易思想도 架空의 推說은 絶對로 註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모러한 前提的 理由도 說明도 없시 『理는體로서 制約者이요. 理由이지 마는 道를 被制約者로서 結果이다』라는 議論을 成立될 수 없는 것이다. 또 氏는 『朱子の 『道是太極云云』의 『是』字는 數學上의 圓一符號가 아니요. 또 道와 太極은 全然 다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儒學思想은 理, 道, 太極, 器 等の 四元論이 되겠다. 그러나 周易思想은 이 네 가지를 太極이라는 一에 包含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太極이라는 實體는 形而上者로 理, 卽 道와 形而下者로 器를 具備하여 渾然一如의 實在者로 □□하였다.

그러므로 繫辭傳에서 『感而□通天下之情』이라 하고, 또 『廣大는 配天地하고, 變通은 配四時하고, 陰陽之義는 配日月하고, 易簡之善은 配至德하니라』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前回拙文에서 究明한 바와 같이 『形而上者, 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라 하여 道와 器가 二片이 되지 안토록 形字로써 聯結하였

다 다시 말하면 潛室陳氏의 『若除了形字，止言上者，議之道，下者，謂之器，却成二片矣』라는 말과 같이 道와 形器에 形字를 俱言하므로써 道와 器가 二片이 아는 것을 明示하였다. 그리고 이 潛室陳氏의 形上形下觀은 伊川의 『有形皆器，無形爲道，形而上爲道，形而下爲器，須若如此說，器亦道，道亦器也』의 形上形下論을 註解한 者이다. 그런데 安浩相氏는 『道와 器가 同一性 아니다』하야 栗谷의 理氣非一物論을 例示하였다. 勿論 누구도 道器의 同一性은 말치 아니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二片이 아닌 것을 생각지 안하면 안된다. 그러므로 道는 物의 技能으로서 器中에 잇는 것이오. 그밖에 잇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太極思想에 있어서 物的 天과 非物的 天과를 區別할 必要가 잇음은 氏의 主張과 같거니와 形體로서의 天은 언제나 物的 天을 意味한 것이오. 非物的 天은 道又는 理를 意味한 것임을 잇어서는 안된다. 이밖에 어느 宗教家와 마찬가지로 天을 或은 人格者로 或은 絶對者로 말한 者 잇으나 이러한 俗說은 周易思想과 何等의 關聯이 없다 要컨대 周易思想은 一元論이오. 二元論도 多元論도 아니다. 그리고 一元의 實體는 天, 或은 太極으로 表現 하였다. 그러므로 天과 太極은 同一한 觀念이다. 卽, 天도 物天과 非物天이 잇고, 太極도 物的 太極과 非物的 太極이 잇다. 그리하야 物天과 非物天이 물이 아닌것과 같이 物的 太極과 非物的 太極도 물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周易의 繫辭傳은 이를 形上形下로 表現 하였는데 伊川은 形上形下를 註解하였으되 『器亦道，道亦器』라 하야 形上形下가 二者가 아님을 明示한 것을 위에서 말하였거니와 지금까지 이 伊川의 主張에 異議를 말한 儒學者는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形上形下の 實體가 太極或은 天이 됨은 絮說할 必要도 없다. 다시 말하면 元來 道와 理는 圓一觀念으로써 或은 天을 或은 太極을 實體로하야 器와 對蹠한 者이오. 또 太極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形而上者로 道와 形而下者로 器를 具有한 者이니 그러므로 形而下者와 形而下者는 全一體로서 그 實體는 勿論天이나 太極이 아니면 아니될 것이다. 그러면 太極이란 어떤 것이냐 이에 對해서는 朗光十一月號 拙文에서 論한바 잇으니 다시 煩論치 안는다. - (十一月十日) -